

 인천광역시		<b>보 도 자 료</b>		 경 재외동포청 축 인천설치 확정!
		배포일자	2023년 5월 24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국제협력과	담 당 자	• 중국교류팀장 김은진 ☎440-3231 • 담당자 김미영 ☎440-3248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17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이행숙 부시장, 중국 윈난성 부성장과 교류 협력 논의

- 중국 남서부 대표 도시 윈난성, 인천시와 우호협력 강화 도모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4일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중국 윈난성 장즈리(张治礼) 부성장을 접견하고,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윈난성은 ‘비철금속의 왕국’이라 불리며, 전기분해 알루미늄 세계 생산량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허브다. 차마고도(茶馬古道)의 시작점으로서 최상급 차류 수출과 함께 최근에는 커피 생산의 세계 흐름도를 바꿀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원두를 생산해 수출 규모가 급증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.

장즈리 부성장은 “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방문하면서 세계적 국제도시로 도약한 인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”며, “인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한층 강화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이에 이행숙 부시장은 “원난성은 수출 품목 다변화와 규모 확대 등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도시”라며, “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미래 시대 글로벌 인재들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, 상호 협력 가능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생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인천과 원난은 2015년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이후 도시대표단 교류, 무역, 문화,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, 특히 양 도시 간 순차 개최하는 청소년 교류 방문 사업을 재개해 우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